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가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앞날의 기동감들로 든든히 준비시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향한 전민총동력전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우리 군

대와 인민은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과 학습과 조직생활을 성실히 하여 소년단원의 영예를 빛내가고 있는 전국의 학생소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다.

대회장인 4.26문화회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히 받드시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조선소년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대회장에는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조선소년단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튼튼히 꾸러자!》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전국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학생소년사업일군들, 청소년교양관계부 문 일군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소년단대표들을 사랑의 환포에 안으시고 대회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넥타이를 매어드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소년단원들을 귀중한 나라의 보배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우시며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진행하게 된 크나큰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소년단대표들이 향기그득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울리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태복동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대표들이 대회주석단에 자리잡았다.

3 번 으 로 계 속

